

닛신보 - 인도에 위탁생산하는 순면사

잡물제거 철저히 품질향상

닛신보는 인도의 “발도만” 면방적 회사에 “찬도라마” 브랜드의 순면사를 위탁 방적하여 일본에 도입 판매해 오고 있는데, “면의 품질이 우수하여 탐은 나지만 잡물(雜物)이 많아 용도에 제한을 받는다”는 평이 많았다.

인도에서는 “찬도라마” 제품에 사용되는 고급 목화를 손으로 수확하고 있는데, 손으로 수확하면 기계로 수확하는 것보다도 면섬유의 손상이 적고, 또한 사람이 잘 성숙된 목화를 선별하여 따기 때문에 면의 성숙도가 비교적 균일하여 미숙면의 혼입이 적어 면 섬유의 품질이 균일하기는 하지만, 잡물이 많이 섞여 있어 용도가 제한을 받는 것이 약점이었다.

그런데 발도만은 이제까지 “찬도라마” 제품에 공급될 원면은 실면(實綿)에서 씨를 제거하는 지닝(ginning 繰綿) 후에 잡물을 제거하였었는데, 이 방법은 지닝공정에서 각종 잡물이 분쇄되어 사람에게 의한 잡물제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닛신보는 원면의 잡물들에는 목화의 잎이나 줄기 등이 가장 많으므로 지닝하기 전에 잡물을 제거하기가 쉽고 효율적이어서 지닝 전에 잡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발도만은 규모가 큰 지닝공장 두 개를 빌려 매일 100명의 인부를 150일간 동원하여 지닝 전에 잡물을 손으로 제거하고, 지닝 후에도 80명이 1년 내내 잡물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닛신보는 비록 인건비가 싸다고는 하나 잡물제거의 수작업을 추가하면 생산 원가가 비싸지지만 그만큼 잡물이 줄어 품질이 향상되며, 원면의 수율(收率)도 높아진다. 물론 생산원가의 인상분을 판매가에 가산하게 되지만, 이 원

면을 사용하는 공장에도 그만큼 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찬도라마” 상품은 30수 단사, 40수 단사, 40수 쌍사로 규격 상품이 되어 있으며, 니트시장에 판매되고 있다.